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 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고진수 (광운대학교)

-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으며, 1인가구 및 임차가구 위주, 낮은 점유면적 및 높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등의 특성이 있다.
- 청년의 가구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들 가구는 향후 청년독거가구, 임차가구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학업, 일자리에 따라 현재 지역으로 이사한 비율이 높으며, 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고 주거불안의 경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등 금융 측면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청년가구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높고, 청년독거가구, 부모동거가구(미혼) 유형에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만 해당 가구의 향후 주거이동 이유를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입지 선정에 있어 도심과 역세권 등 대중교통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수도권 거주 청년독거가구는 학업, 일자리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으로 이사한 비율이 높으나 향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이사할 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광역시와 광역도에 거주하는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의 경우 더 나은 일자리 기회와 구직을 위해 이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40대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청년지원 정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인 청년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청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청년의 주거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청년의 가구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을 청년가구주와 청년비가구주로 크게 구분하고, 청년가구주를 ①청년독거가구(1인가구), ②청년부부가구, ③청년·자녀가구, ④부모동거가구, ⑤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로 구분하고, 청년비가구주를 ⑥부모(가구주)·미혼청년가구, ⑦부모(가구주)·기혼청년가구(이혼, 별거, 사별 포함), ⑧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로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는 3,713개 자료인데 반해 「청년 삶 실태조

사」는 동일한 기준의 청년가구주 가구가 7,071개 자료이며, 거기에 비가구주인 청년 7,895개 자료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의 주거실태를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청년 가구의 위상, 청년가구 유형 및 일반 특성, 주택 거주 현황 및 주거비 부담, 주거의 질 및 주거정책 수요, 주거이동 및 이유로 구성된다.

청년가구의 위상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2021년을 기준으로 청년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를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우리나라 청년층(40세 미만 가구주)은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소득과 순자산(자산-부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VIII-14).

낮은 경제적 수준과 더불어 청년들의 1인가구의 비율과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표 VIII-15).

청년(40세 미만) 가구의 비율은 고령화로 인해 낮아졌지만(2015년 24.2%→2021년 23.3%), 1인가구 비율(41.0%→52.8%)과 무주택가구 비율(65.9%→70.7%)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청년의 주거수준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VIII-15).

〈표 VIII-14〉 연령별 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 2021

(만 원)

	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
40세 미만	6,398	35,625	9,986	25,639
40-49세	7,871	55,370	12,208	43,162
50-59세	8,086	56,741	10,074	46,666
60세 이상	4,602	48,914	5,703	43,211
전체	6,414	50,253	8,801	41,452

주: 1)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19-34세로 정의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0세별로 통계를 제공함에 따라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2) 경성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2년 자료의 2021년 경성소득 자료를 활용하였고, 자산과 부채, 순자산은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2022.

〈표 VIII-15〉 연령별 1인가구, 무주택가구 비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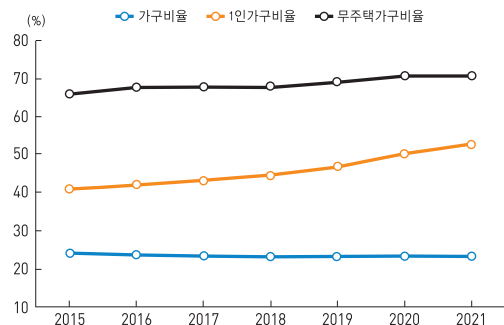
(%)

	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무주택가구 비율
40세 미만	23.3	52.8	70.7
40-49세	19.8	22.4	40.4
50-59세	22.5	22.8	36.1
60세 이상	34.4	33.5	32.4
전체	100.0	33.4	43.8

주: 1)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19-34세로 정의되지만, 「주택소유 통계」는 10세별로 통계를 제공함에 따라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주택소유통계」, 2022.

〔그림 VIII-15〕 청년(40세 미만) 1인가구, 무주택가구 비율, 2015-2021



주: 1)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19-34세로 정의되지만, 「주택소유 통계」는 10세별로 통계를 제공함에 따라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주택소유통계」,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는 다른 유형들(신혼부부, 노인가구)에 비해 자가점유율, 전용면적이 낮으며, 이러한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년가구의 자가 보유의식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표 VIII-16).

〈표 VIII-16〉 가구 유형별 자가점유율, 전용면적 등, 2021

구분	자가 점유율 (%)	전용 면적 (m ²)	공공임대 의향 (%)	자가보유 의식 (%)
청년가구	13.8	43.5	52.1	81.4
신혼부부	43.9	72.8	36.7	90.7
노인가구	75.7	72.3	24.3	91.5
전체가구	57.3	68.3	34.7	88.9

주: 1)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 20~34세,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가구,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주거실태조사」, 2022.

청년층의 소득 및 주거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으며, 1인가구 및 임차가구 위주로 전용면적이 낮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자료는 청년층의 가구유형에 따른 주거실태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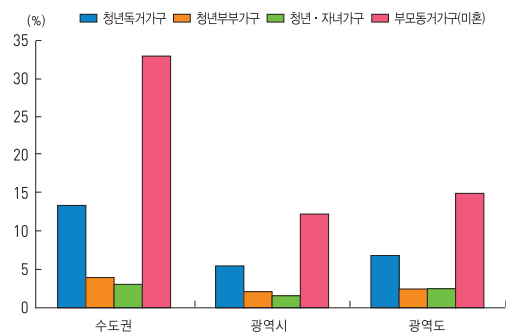
청년가구 유형 및 일반 특성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가 정의하는 청년 가구는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9~34세 가구원

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이다. 앞에서 언급한 청년가구 8개 유형 중 전체 자료의 5%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4가지 유형(①청년독거가구, ②청년부부가구, ③청년·자녀가구, 그리고 ⑥부모(가구주)·미혼청년가구(이하 부모동거가구(미혼))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은 비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 포함), 광역도(경기 제외)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대부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9.7%), 다음으로 청년독거가구(25.4%), 청년부부가구(8.1%), 청년·자녀가구(6.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도, 광역시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VIII-16).

〈그림 VIII-16〉 가구 유형별 비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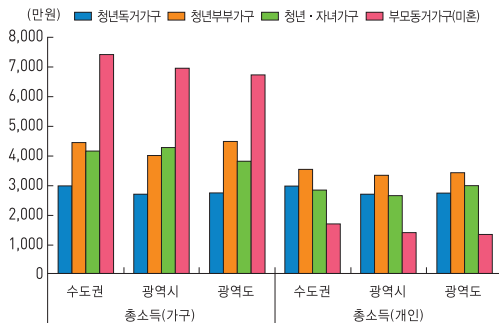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청년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의 경우 부모동거가구(미혼)가 부모의 소득이 포함되어 높게 나타난데 반해 청년독거가구는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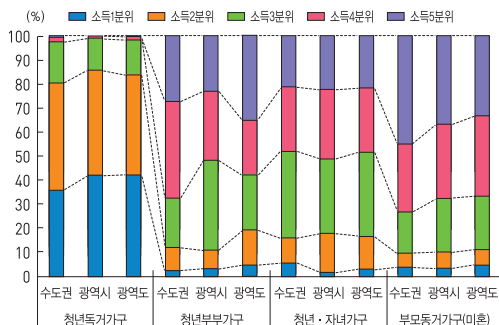
낮았다. 청년 개인 소득의 경우 청년부부가구가 가장 크며, 청년독거가구와 청년·자녀가구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수도권, 광역도, 광역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다음으로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청년독거가구는 다른 유형에 비해 소득1~2분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 측면에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17).

[그림 VIII-17] 연 소득 및 소득 분포, 2022

1) 평균 연 소득



2) 가구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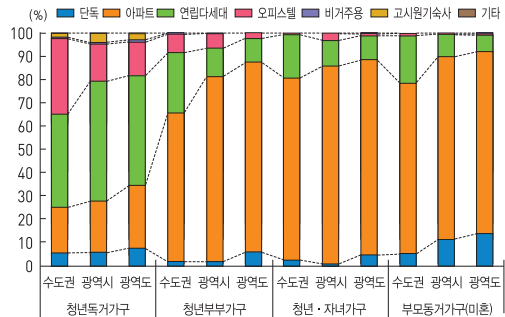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주택 거주 현황 및 주거비 부담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연립다세대 등에 거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수도권 거주 청년독거가구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VIII-18).

[그림 VIII-18] 주택 유형 비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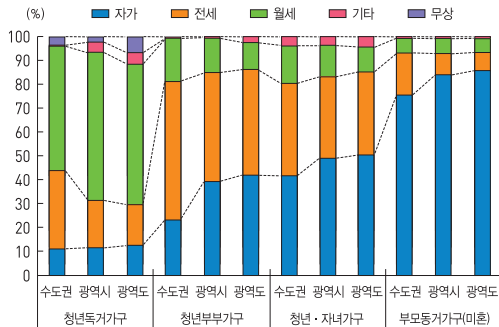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점유형태의 경우 부모동거가구(미혼)는 자가 가장 많으며, 청년독거가구는 임차, 그 중에서도 월세(보증부 및 순수월세)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의 전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VIII-19).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구입 혹은 임차 자금 부담자를 보면, 청년독거가구는 본인 혹은 부모님 자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청년 부부 및 자녀가구는 정부·지자체와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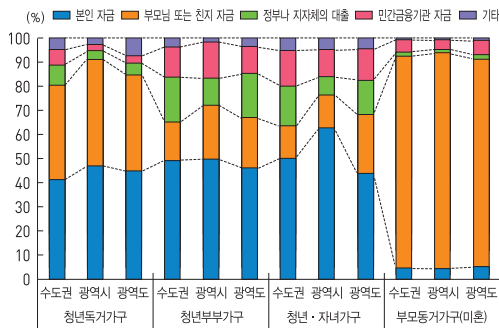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20).

[그림 VIII-19] 점유형태 비율,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20] 주거자금 부담자 비율,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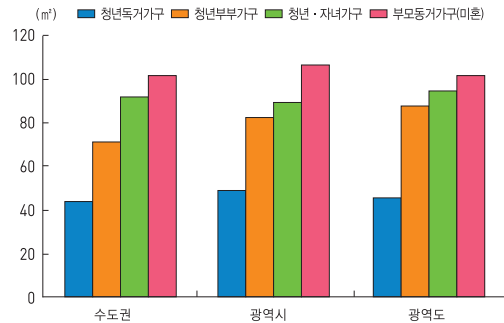
가구의 주택규모는 부모동거가구(미혼), 청년·자녀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독거가구 순으로 평균 면적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면

적이 작게 나타났다. 광역시는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의 평균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광역도에서는 청년부부 및 청년·자녀가구의 평균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 한편 점유유형별로는 임차가구의 평균 면적이 자가가구보다 작았으며, 광역도 임차가구 중 청년·자녀가구의 평균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VII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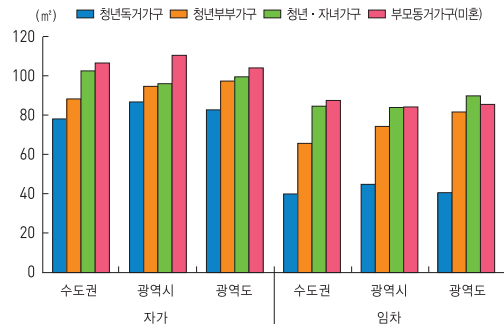
자가가구의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에

[그림 VIII-21] 평균 전용면적, 2022

1) 전체 평균



2) 자가/임차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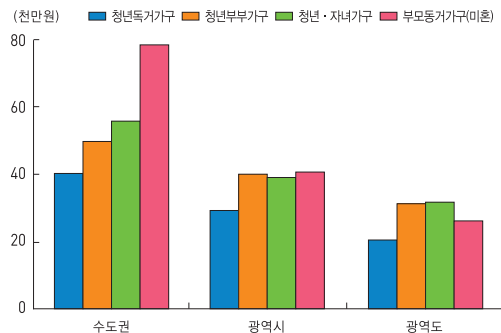
서는 청년독거가구가 가장 낮고 그 외 가구 유형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에서도 청년독거가구의 주택가격이 가장 낮았다. 또한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PIR을 살펴보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청년독거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22).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비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지역별 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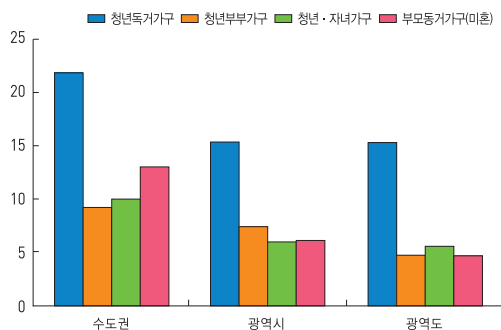
세전환율을 사용하여 환산 연 임대료를 도출하였다. 청년독거가구의 환산 연 임대료 평균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부모동거가구(미혼), 광역시에서는 청년·자녀가구, 광역도에서는 청년부부 및 청년·자녀가구의 환산 연 임대료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환산 연 임대료를 연소득으로 나눈 RIR을 살펴본 결과 청년독거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그림 VIII-22] 주택가격 및 PIR, 2022

1) 주택가격 평균



2) PIR 평균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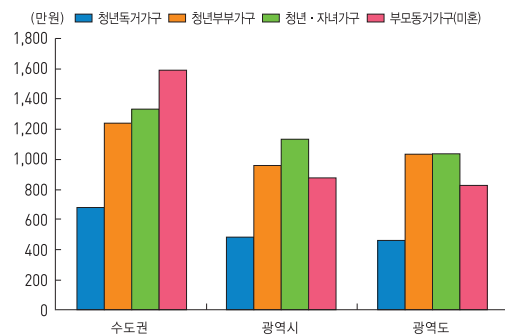
2) PIR = (자가 소유 주택 가격 ÷ 연 가구 소득)

3) PIR 평균은 개별가구의 주택가격, 소득을 이용하여 가구별 PIR을 도출한 후 집단별 평균을 통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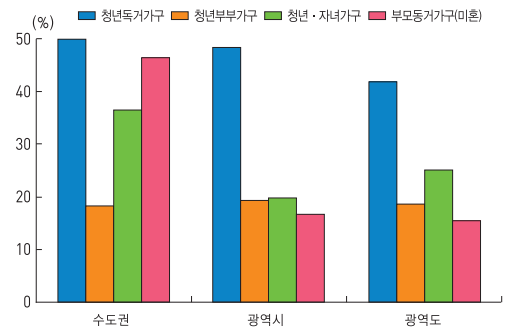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23] 환산 연 임대료 및 RIR, 2022

1) 환산 연 임대료 평균



2) RIR 평균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환산 연 임대료 = (보증금 ×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 (월세 × 12)

3) RIR = (환산 연 임대료 ÷ 연 가구 소득) × 100

4) RIR 평균은 개별가구의 보증금, 월세, 전월세전환율, 소득을 이용하여 가구별 RIR을 도출한 후 집단별 평균을 통해 도출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청년독거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자녀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의 RIR도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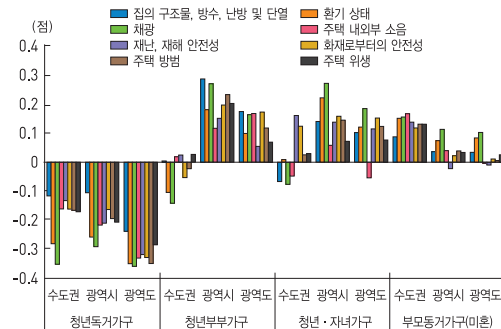
주거의 질 및 주거정책 수요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를 보면 하위항목별로 3.3~4.4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글에서는 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9개의 상태평가 항목과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채광'의 수치는 -0.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채광'의 평균값(3.78)과 전국 '채광' 평균값(4.13)의 차이이며, 부(-)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채광'에 대한 평가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을 종합해 보면, 청년독거가구와 수도권 거주 청년 부부 및 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그림 VIII-24).

주택 위치 측면에서 주거의 질을 판단해 보면, 반지하, 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청년가구들이 전체 청년가구의 약 0.9% 정도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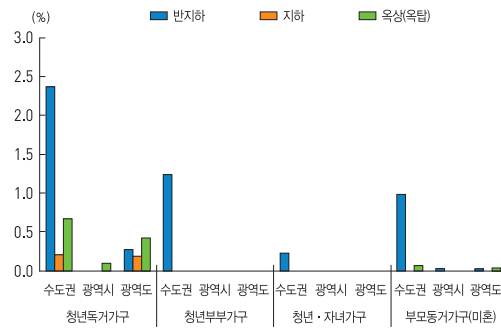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체 청년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부모동거가구(미혼)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26).

[그림 VIII-24]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차이,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평가 차이는 항목별 유형별 지역별 평균 점수(5점 척도)를 각 항목별 평균 점수의 차이로 계산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25] 주택 위치별 비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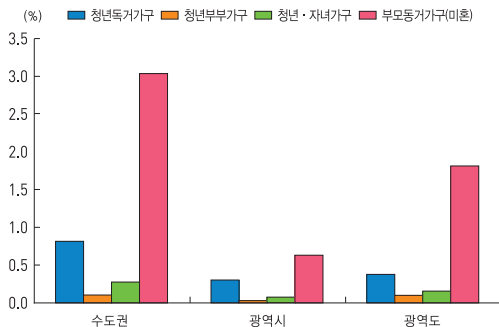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8개) 역시 3.3~4.2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대적인 척도(각 항목별 평균과의 차이)로 변환하여 보면, 유형별로는 청년독거가구,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청년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청년

독거가구는 대중교통 만족도가 높는데 반해, 청년·자녀가구는 동일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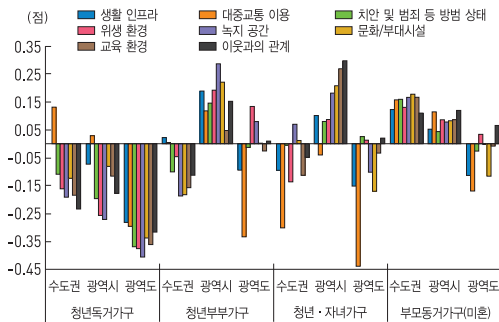
[그림 VIII-2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27]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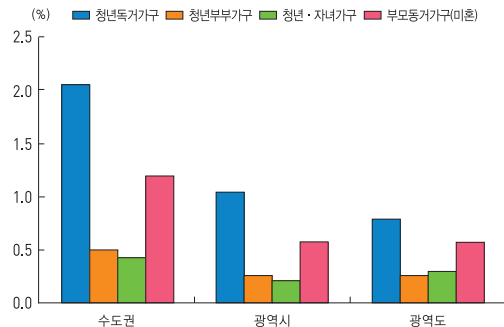
2) 통계치는 항목별 유형별 지역별 평균점수(5점 척도)를 각 항목별 평균점수의 차이로 계산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전체 청년가구의 8.2%가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부족 등)을 경험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의 주거불안 경험

[그림 VIII-28] 주거불안 경험,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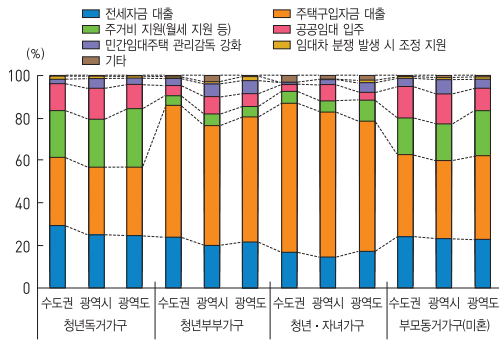
2) 통계치는 '월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부족', '임대인이 기피하여 주택확보 곤란',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주택압류, 재개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퇴거',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임대인과의 갈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의 주거불안 상황 중 1개 이상 경험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그리고 주거비 지원 등 금융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부부가구 및 청년·자녀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청년독거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는 공공임대 입주가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VIII-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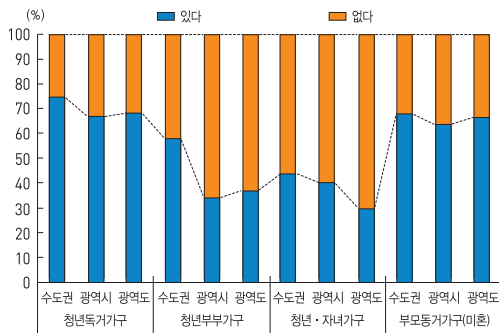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가구 중 64.2%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수도권 거주 가구와 청년 독거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30).

[그림 VIII-29]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에 대한 1순위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30]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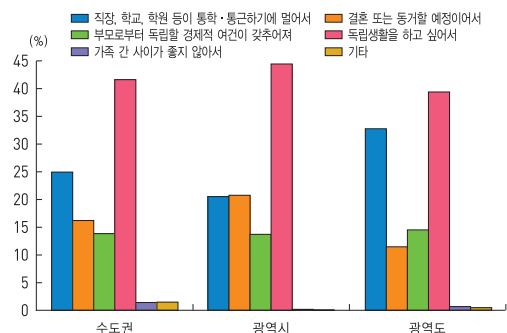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기회가 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자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주거이동 및 이유

현재 부모와 거주하는 미혼 청년 중 독립 계획이 있는 가구는 32.1%이며, 지역별로 보면, 광역도(38.3%), 수도권(30.7%), 광역시(28.5%)순으

로 나타났다. 주된 독립계획 이유를 보면, ‘독립 생활을 하고 싶어서(41.6%)’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26.5%)’,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15.7%)’,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서(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역시에서는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광역도에서는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림 VIII-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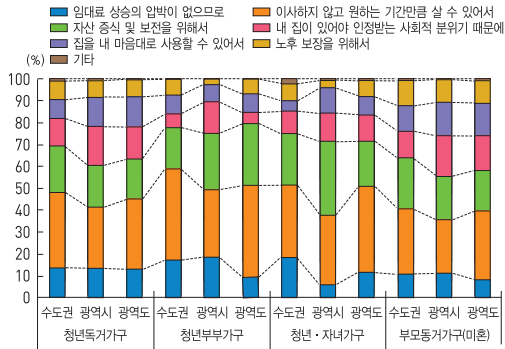
[그림 VIII-31] 부모동거가구(미혼)의 독립계획 이유,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부모동거가구(미혼) 중 독립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3) 통계치는 독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청년 가구 중 91.1%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주요 이유로는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32).

[그림 VIII-32] 자가주택 필요 이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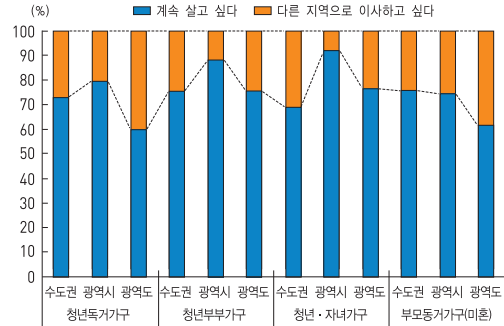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내 집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3) 통계치는 내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은 72.5%로 높은 수준이나 광역도의 청년독거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의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그림 VIII-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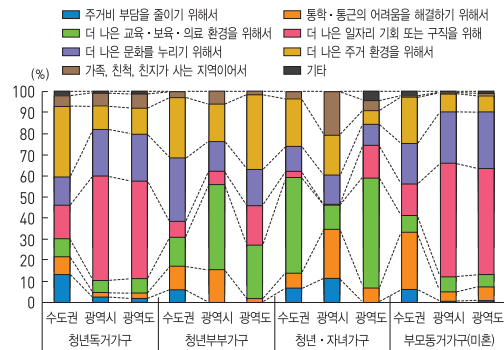
다만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통근·통학과 관련해서는 광역시의 청년·자녀가구, 수도권 지역의 부모동거가구(미혼), 교육·보육·의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의 청년부부가구, 수도권 및 광역도의 청년·자녀가구의 응답이 높았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광역시 및 광역도의 청년독거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 문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청년부부가구,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청년독거가구, 광역도의 청년부부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VIII-34).

[그림 VIII-33]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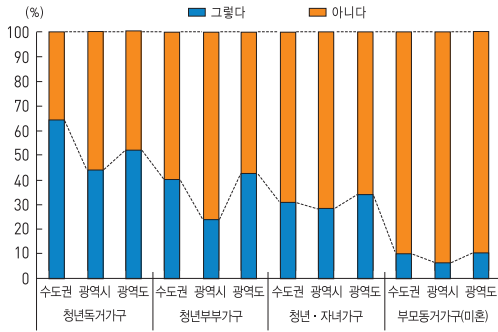
[그림 VIII-34]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3) 통계치는 현재 거주지역에서 다른 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특히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는 청년독거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거주자에서 두드러진다. 청년독거가구의 주거선택에 있어 학업 및 일자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림 VIII-35).

[그림 VIII-35]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시/도로 이사 해 오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맺음말

청년가구는 중장년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주거선택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가구유형별, 지역별로 청년가구가 처해있는 주거상황은 차이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는 청년가구를 보다 세분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의 가구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청년독거가가 가장 주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청년독거가구는 학업, 일자리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으로 이사진 경우가 많았으나,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상태가 열악하여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고 주거불안의 경험도 크게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이사할 의향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대중교통이용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동거가구(미혼)의 경우, 32.1%가 향후 청년가구로 독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청년독거가구의 비중은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독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수도권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높고, 청년독거가구, 부모동거가구(미혼) 유형에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환경이 양호한 주거입지를 선택하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동거가구(미혼)의 경우에도 통학, 통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이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입지 선정 시 대중교통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광역시와 광역도에 거주하는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미혼)가구의 경우 더 나은 일자리 기회와 구직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은 주거환경의 개선, 광역시와 광역도 지역은 일자리 등의 확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청년가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유형과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정책의 마련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불가능한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함께 고민되어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